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특선양극리 인간극장 <순남씨의 비밀정원>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유적토코소 가요1번지 55 바른말 고운말	00 청춘 FC 형그리 일레븐 (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재)	10 KBC 생활뉴스 30 여름방학특집 애니왕국
12	00 KBS 뉴스 12	0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5 VJ 특공대(재)	20 아하! 동물탐험대(재)	00 2015 중흥 S-클래스 kbc 교과전문 골프대회
2	00 2015 KBS배기계체조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특선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동물가족 체험기 와이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크현장 고행이 보인다
3 00 직인직설	55 튜튼 생활체조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꼬마돌도도 40 통일 정망대	00 SBS 뉴스 10 민영방송 공동기획 창업스타(재)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장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강강의 시리즈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막 너같은 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터닝 매카즈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KBS목표 개국 73주년 기념 목표가요축제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 극장(단편)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막 너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스토리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	00 월화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11 00 충격 실화극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글로벌 다큐엔터티 5부작 인간과 우주	10 우리동네 예제능	15 PD수첩	15 썬넛녀
12 30 애내가 났잖아(재)	30 독립영화관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이병헌 “개봉 지연 내 탓... 모두에게 죄송”

영화 ‘협녀, 칼의 기억’ 내달 13일 개봉 확정

전도연·김고은 등 흥행 성공 자신감 보여

‘협녀, 칼의 기억(사진)’은 한류스타 이병헌과 ‘칸의 여왕’ 전도연이 ‘내 마음의 품목’ 이후 15년 만에 호흡을 맞춘 무협 사극이라는 점에서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어공주’ 등으로 호평받은 박희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한국 영화 평균의 두 배가량인 순제작비 9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작년 2월 촬영이 종료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가 되어했을 이 영화 개봉은 ‘이병헌 스캔들’ 여파로 미뤄지다가 내달 13일로 확정됐다.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개봉을 일러러 24일 오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연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이병헌은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했다. 이병헌은 먼저 행사 시작 전 홀로 무대에 올라 “누우치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관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내 죄송한 마음을 잊지 않고 많은 분에게 드린 상처와 실망감을 갚아나겠다”고 말했다. 개봉이 지연되는 바람에 국내외의 대작과 경쟁하게 된 상황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제 영향이 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배우들과 감독님,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하며 한 차례 더 사과했다.

전도연은 이 자리에서 “액션 장면을 찍으면서 이병헌으로부터 많이 배웠다”며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게 맞느냐’고 혼나서 연습을 더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제가 액션을 잘한다는 소리로 들리지만, 사실 제 대역을 맡은 분이 ‘지.아이.조’ 보고 기대했다가 저한테

실망했다고 할 정도로 잘하지는 않는다”고 겸손하게 받았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9월 두 여성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두 여성은 범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이병헌은 대중으로부터 아내를 버려두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큰 비난을 받아 왔다. 이 스캔들 이후 이병헌의 작품이 개봉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가 할리우드에서 찍은 영화인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최근 개봉해 국내에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그의 분량이나 작품 전체에 주는 인상으로나 이병헌 이미지의 영향력이 큰 영화는 아니었다. 반면 ‘협녀’는 이병헌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축이 되는 작품인 만큼 개봉 이후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 말을 무대로 한 이 영화는 천민 출신이나 검술과 야심을 바탕으로 권력자가 된 유백(이병헌)과 눈먼 검객 월소(전도연), 부모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홍이(김고은)가 펼치는 이야기다.

김고은도 “이제까지 개봉한 영화가 다 대작과 붙어서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해맑게 말했으며 전도연도 “큰 영화들이 많기는 하지만, ‘협녀’는 무협영화이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했다.

이러 전도연은 영화 출연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박 감독님이 ‘인어공주’ 찍고 나서 여자들의 무협극을 찍고 싶다고 하셨는데 8년 뒤 시나리오가 나오고도 연락이 없기에 내가 먼저 연락했다”고 소개했다. 맹인 검객 연기를 펼친 데 대해서는 “감정 연기와 액션을 모두 해야 했는데 그중에서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다”며 “유연하게 춤을 추듯 검술을 펼치라는 주문을 받아 고전무용까지 배웠지만 소화가 잘 안된 것 같다”고 했다.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	14:45 미연미로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극한집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디큐 오즈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세계마을 타기투!	20:50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의 열풍, 네바>
07:15 곤(재)	<모스크바에서 우랄까지 2500km 대장정>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여름 합천>
07:30 출동! 슈퍼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빛의 물리학>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30 볼리더 구조대, 뽀잉	22:45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지식테레노	16:45 콧마와 친구들(재)	22:5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동남아 섬 기행>
08:20 두다다(재)	13:10 초중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WHO-위안극장(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동남아 섬 기행>
08:35 WHO-위안극장	13:30 초중 2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5 바오람섬의 파오파오	24:05 지식채널E(재)
08:50 콧마와 친구들	13:50 초중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4:10 EBS 인문학 특강
09:05 바오람섬의 파오파오(재)	14:15 피터 래빗	17:45 꼬마버스 타요	
09:20 놀이더 구조대, 뽀잉(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9:35 이밤!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지파이터스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율리프스 <국어 I-알파개념>	12:10 율리프스 <국어 I-알파개념>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중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0:50 <고교 Basic Grammar 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00 초중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1:40 <문학-알파개념>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B>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20 초중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2:30 <미적분 I>	14:50 율리프스 <문학-알파개념>	09:10 중학단기특강 <영어 I 독해240제>	16:40 초중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3:20 <수학 I>	15:40 <미적분 II>	09:50 <영어 I 독해240제>	17:00 초중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4:10 율리프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16:30 <수학 I>	10:30 TV중학 <영어2 독해240제>	18:00 중학단기특강
05:00 뉴탐스런 <물리 I>	18:10 2016 N제 <국어B>	11:10 중학단기특강 <영어3 독해240제>	
06:00 <생명과학 I>	19:20 <경제>	11:50 <영어2 독해240제>	18:40 <수학3 300제>
06:40 <동아시사사>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2:30 실전 취업가이드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07:30 <윤리와 사상>	20:50 2016 인터넷 수능	13:10 등산산공 <수학1(하)>	20:00 EBS 기획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13:50 <과학1(하)>	20:50 EBS 기획시리즈
09:10 <심층적의 수학 I>	21:50 <문학A형>	14:30 <수학2(하)>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09:20 <영어>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5:20 초중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00 등산산공 <과학2(하)>
11:00 <수학 I>	23:10 2016 인터넷 수능 <영어독해연습>		22:40 <수학3(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8일(음 6월 13일 乙巳)

子	48년생 일취월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60년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어려만 타개할 수 있겠다. 72년생 충동적인 판단 하에서 기만한다면 후회해 따른다. 84년생 기본적인 것이 누락되어 애를 먹겠다. 행운의 숫자 : 82, 43	午	42년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낫다. 54년생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해결 된다. 66년생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라. 78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9, 53
丑	49년생 필요하더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61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73년생 서설은 생각하고 한시바빠 본문으로 들어가야 옳다. 85년생 상대의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46, 03	未	43년생 해몽은 일이 맑음하게 해결되는 단계이다. 55년생 지난 일은 차치하는 것이 속 편하다. 67년생 피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니 각오 해야겠다. 79년생 똑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37, 60
寅	38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50년생 적당히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2년생 믿어도 된다. 74년생 생 실요성을 타진해 보자. 86년생 임시적이니만큼 전혀 집착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23, 05	申	44년생 자연스러움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리라. 56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 쥐야 할 형국이다. 68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80년생 연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행운의 숫자 : 54, 64
卯	39년생 노력에 비해 효과는 별로이다. 51년생 실질을 숭상하자. 63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75년생 현상 유지가 최상이다. 87년생 기량임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기세이다. 행운의 숫자 : 50, 34	酉	45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맞대응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 57년생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다. 69년생 의외의 인품과 만남이 있으리라. 81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0, 98
辰	40년생 공들여 왔던 것에 희망의 싹이 튼다. 52년생 현상이 점점 강해질 것이니 확실해 대비해야만 한다. 64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76년생 시가나 내용을 읽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72, 25	戌	46년생 절대로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8년생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과실을 최소화 하리라. 70년생 기교가 첨가 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 82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척질이 사급하다. 행운의 숫자 : 90, 66
巳	41년생 평상시에 마음먹어 왔던 의지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53년생 시기를 놓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자장이 많을 것이다. 65년생 생 종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는 법이다. 77년생 알고도 속여주는 입장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6, 36	亥	47년생 절실히 필요로 해왔던 것이 때맞추어 생긴다. 59년생 번변찮은 일은 과감하게 차치하는 결단을 요한다. 71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재량이 된다. 행운의 숫자 : 67, 7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영화 ‘암살’ 개봉 첫주 300만 저격

박스오피스 1위, ‘인사이드 아웃’도 300만 돌파

최동훈 감독의 시대극 ‘암살’이 주말에만 240만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7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은 24~26일 사흘간 1천519개 스크린에 걸려 244만3175명을 동원했다. 매출액은 196억8000만원으로, 이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66%였다.

22일 개봉 이후 관객 수는 모두 337만179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로는 가장 좋은 개봉 첫주 성적이다. 하루 관객 수도도 ‘암살’은 일요일인 26일 95만665명을 모아 작년 개봉작 ‘명량’(125만7000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그에 밀려 2위로 내려갔으나 개봉 3주차에 누적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주말을 보냈다.

‘인사이드 아웃’은 주말 사흘간 69만6821명(매출액 점유율 18.3%)을 보태 총 관객 수를 319만9091명으로 늘렸다. 이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개봉한 픽사 애니메이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용 애니메이션도 좋은 성적을 냈다. ‘극장판 요괴워치-탄생의 비밀이다냥!’은 개봉 첫주 27만7042명을 모았다. 개봉 한 달이 지난 ‘연평해전’은 14만9401명을 모아 4위로 떨어졌다. 누적 관객 수는 593만929명으로 곧 6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다양성 영화 중에서는 미국 음악영화 ‘러디리스’가 3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이 영화는 주말 사흘간 1만2368명을 모아 누적 관객 수는 6만1837명이다. 새 개봉작으로는 동성애자의 정체성 혼란을 그린 프랑스 코



미디 ‘난 그녀와 키스했다’(6210명)와 평범한 은행원이 월경범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그린 일본영화 ‘종이 달’(6187명), 마틴 루서 김 목사와 시민들의 비폭력 투쟁을 그린 ‘헬마’(6146명) 등 세 편이 관객을 비슷하게 나누어 갔다. /연합뉴스